

# 광우병 수입 미국산 쇠고기 출하 저지투쟁 시동

8 민주노총 | © 승인 2008.05.30 17:37

## 보건의료노조 견우물류 앞 약식집회 진행, 6월3일 본격화될 듯

광우병 수입 미국산 쇠고기 출하 저지투쟁 시동  
보건의료노조 견우물류 앞 약식집회 진행, 6월3일 본격화될 듯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장관고시 강행으로 국민적 저항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출하와 관련된 민주노총 운송저지 투쟁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30일 오후2시 경기도 광주 '견우물류' 창고 앞에서 70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갖고 "광우병 쇠고기 운송중단" "장관고시 철회" 등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운송저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견우물류에는 민주노총이 파악하고 있는 14곳 저장창고 중 네 번째로 물량이 많은 데로 266,455Kg, 2.5t 트럭 기준으로 106대 분의 물량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해선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미국사람들도 먹지 않는 쇠고기를 현 한국정부는 국민들에게 들이밀고 있다"며 "6월 3일부터는 이곳에 숙식하면서 싸워야 할지도 모를 만큼 이제 우리가 나서서 싸워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총연맹 임원으로 이곳 창고를 맡고 있는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87년 투쟁 때와는 다르게 초중고생, 네티즌들의 이번 투쟁은 인터넷, 휴대폰, 동영상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번져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농민, 주부들 1인 시위, 유모차 시위 등 자기가 할 수 있는 투쟁을 하고 있듯 노동자들도 물류투쟁에 박차를 가하자"고 말했다.

"인천시민"이라고 말을 댄 유숙 보건의료노조 경인부천본부장은 "딸과 함께 집회에 참석하면서 3개월 이상짜리도 수입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딸이 광우병에 걸릴지도 모르는데 우리 딸 좀 살려 달라"며 견우물류 직원들을 향해 운송저지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다.

조영호 경기본부장은 "병원에서 광우병 관련 뺏지를 만들어 환자들에게 나눠주고 조합원들에게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삼육재활병원 이사장이 처음에는 미국산 쇠고기를 쓰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노사가 만났을 때는 '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국민적 분위기가 반영되고 있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원종화 보훈병원지부장은 "촛불문화제에 참석하면서 국민들의 모습을 보고 '80년 광주'를 떠올렸다"며 "병원의 의사들조차 노조에서 만든 뺏지를 빼앗아 갈 만큼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 참가자들은 "운송을 멈춰주시고 보관을 거부해주세요" "기어이 반출하려거든 미군부대로" 등을 적어 만든 손 전단을 물류창고 정문에 부착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집회를 의식한 듯 견우물류에는 경찰버스가 2대 배치된 상태에서 추가로 1대가 더 출입하기도 했고 집회장소 앞 3번 국도로 화물연대 팻말이 걸린 화물컨테이너 트럭이 지나가자 집회 참가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기도 했다.

강상철 기자

